

사람의 생명현상을 어떻게 볼까?

| 정덕영 살맛터 의기학(意氣學)연구소 |

인간을 입자적 측면과 파동적 측면으로 살펴보고 물리적 구조로서의 인체와 심리적 구조로서의 마음 모두의 독소를 제거함으로써 건강을 이루자고 말합니다. (편집자 주)

생명은 존재의 목적이 먼저 있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움직여
림을 한다. 그 움직여림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필자는 매 순간
의식의 선택과 그에 따른 에너지 작용이라고 본다. 사람은 매 순간
내부 또는 외부로부터 사건(자극)에 직면 하고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
이든지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그 선택에 따른 반응을 한다. “이러한
반응은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움직이는가? 그리고 외부와는 어떻게 영
향을 주고받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초를 물질적인 움직여림보다는
에너지적인 움직여림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것을 양자론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파동론”과 “의식의 선택”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
는 본고의 내용상 자칫하면 형이상학적인 관념론으로 빠질 수도 있
기에 이에 대한 보완으로 보통의 접근에서 생략하는 기초적인 물리이론

의 정리도 아울러 소개할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더 높은 차원의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제대로 이해하면 이 세상에 관념이라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실재하는 의식의 드러남이다.”

드러난 허상과 숨겨진 실상

생텍쥐베리의 ‘어린왕자’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온다. “모자”라는 것을 보고 어른들은 모두 모자라고 하지만, 어린 왕자에게는 코끼리를 삼켜버린 보아뱀으로 보인다. 이미 들어와 있는 신념에 고착되면 굳어진 외면의 형체-드러난 허상 밖에 볼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형체의 이면에 숨겨진 변화무쌍한 실상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모자만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숨겨진 코끼리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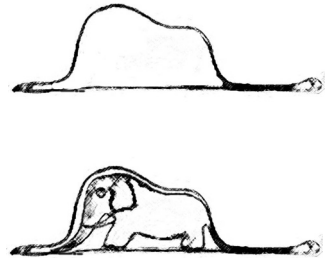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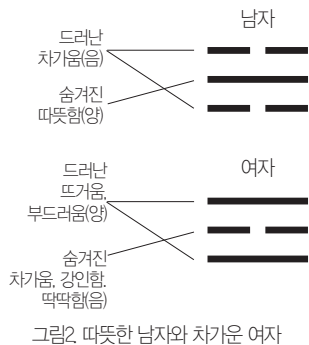


그림1. 드러난 모자(現)와 숨겨진 코끼리(象)

생명(生命)현상(現象)을 볼 때는 생명체가 드러난 허상과 생명체의 숨겨진 실상을 보아야 한다. ‘따뜻한 남자’와 ‘차가운 여자’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것처럼 부드러운 여자의 이면에는 강인한 본성을 숨기고 있으며, 또한 강해 보이는 남자의 이면에는 한없이 약한 본성이 숨어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음양의 동시/상보적 원리를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물리적 실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필자는 물리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연구한 물리학의 관점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물리학에서는 물질계의 구성과 운용원리를 다음의 두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다. 하나는 고전물리학으로 대표되는 거시물리학의 관점이고 또 하나는 양자물리학으로 대표되는 미시물리학의 관점이다. 전자는 드러난 허상을, 후자는 숨겨진 실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물리현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물리학자들은 물질계의 구성 원리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물질을 나누기(chunking) 시작했다. 그 첫째가 분자이다. 분자(分子, molecule)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하나의 단위로 작용할 수 있는 원자들의 결합체 즉, 드러난 본래 성질을 유지하고 있는 최소한의 물리적 단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분자는 일정한 질량/구조/원자조성을 가진다. 원자는 분자를 이루는 기본단위이며, 분자는 순수한 화합물에서 그 특징적인 조성과 화학적 성질을 유지시키는 가장 작은 입자이다. 즉 물질은 본래 물리적인 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분자와 이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原子, Atom)로 분해할 수 있으며 고전물리학에서는 원자를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한의 물리적 기본단위로 보고 이를 입자(粒子)라고 표현하였다.

그런데 과학이 진보하면서 원자를 더 작은 알갱이로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원자는 중성자와 양성자로 구성된 원자핵과 이를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이 보다 더 작은 쿼크, 타키온, 뮤온, 페르미온, 보손이라고 하는 구성입자들이 밝혀지게 되었고, 이렇게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을 소립자(素粒子, elementary particle)라고 부르게 된다. 특히, 원소주기율표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원자는 몇 개의 전자가 어떤 궤도에서 움직이느냐에 따라 그 속성이 결정(원소의 종류가 결정)된다. 모든 물질계의 속성은 전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자가 1개이면 수소, 2개이면 헬륨, 6개

■■■ 물리적인 구조의 문제는 체내의 중금속,
화학·환경독소 그리고 활성산소 등으로 대표되는
물질적인 독소의 해독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
심리적인 부분은 억울함의 코드에서 기인한
심리적인 독소의 해독이 중요한데...

이런 탄소”가 되는 것이 바로 전자에 의해서 원자의 속성(원소)이 결정되는 것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인 것이다.

물리학자들은 원자의 성질(원소)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소립자인 전자에 대해서 그 실체성을 연구하게 되는데, 이 전자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고정된 실체로서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파동(플러스전하를 띤 원자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회전자찰력에 의해서 전자기파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하나의 에너지장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에너지장을 파동장이라고 함)이라고 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물리량으로 에너지의 단위인 양자(量子, quantum, 양자개념은 빛에 대한 연구인 플랑크의 양자가설에서 시작함)개념을 도입하여 소립자의 물리현상을 설명하게 된다. 이것이 양자물리학이며 모든 물리현상은 고정된 실체로서의 입자적인 성향과 불확실한 현상으로서 파동적인 성향을 모두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하는 입자/파동 상보설을 주장하게 된다.

위에서 우리는 물질현상을 규명하기 위한 물리학자들의 연구는 원자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인 입자가 뉴턴의 세 가지 운동법칙(“몸과 마음과 파동의 법칙” 도표 참조)에 의해서 운용되는 거시적 세계(원자이상의 세계)의 물리현상을 설명하는 고전물리학의 접근과 원자구성입자인 소립자 특히, 전자가 파동함수의 틀 안에서 불확정성과 의식의 선택이라는 법칙(“몸과 마음과 파동의 법칙” 도표 참조)

에 의해 운용되는 미시적 세계(원자내부의 세계)의 물리현상을 설명하는 양자물리학이라는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됨을 살펴보았다. 즉, 물리계의 모든 현상은 거시이면서 동시에 미시인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하나의 실체이며, 이는 입자라고 하는 실체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라고 하는 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물질계는 고전(거시, 입자)물리학과 양자(미시, 파동)물리학의 상호 보완하는 작용에 의해서 운행이 되고 그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두 관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고전물리학은 원자와 그 이상의 거시세계의 물리현상을 기술한 것으로서 원자인 입자(粒子: 매우 조밀 조밀함)가 뉴턴의 세 가지 운동법칙에 의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예측 가능한 기계적 물리관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양자물리학은 원자 내부의 전자와 그 이하의 입자인 소립자(素粒子: 매우 성성함)의 세계로 표현되는 미시세계의 물리현상을 기술한 것으로 전자와 기타의 소립자들은 파동함수라는 상상의 운동법칙 속에서 확률적이고 불확정적으로 그리고 괴이하게 움직인다는 것이다. 또한 평상시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가 관측자인 사람이 보려고 하는 그 순간 알 수 없는 파동함수의 드러냄에 의해서 입자상태로 현실세계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물질 우주는 고착된 입자이면서 동시에 가변적인 파동이라는 양면성의 두 가지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그 드러냄이 변한다는 것이다. 양자론의 주류파인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파동현상은 그 실체를 알 수 없으나 그 존재는 드브로이의 물질파인 전자기파의 형태로 존재하며 그 움직거림은 슈뢰딩거의 파동함수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의 입자세계에 드러나는 방식은 관찰자의 관찰(사람의 의식)에 의한 파동수축과 그것이 나타날 장소를 결정하는 확률해석에 따른다는 것이다. 입자와 파동이 공

존한다고 할 때 보고자 하는 관찰의식이 강하면 사물의 입자적인 측면이 강하게 드러나 현상계에 실재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파동적인 측면이 강하여 현상계에 실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지금 이순간 자신의 엉덩이를 느껴보십시오. 엉덩이에 어떠한 느낌이 느껴지십니까? 앉아 계시다면 바닥 혹은 의자와 엉덩이 사이의 압력이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어땠나요? 엉덩이의 압력을 느끼셨나요? 아닙니다. 느끼지 못했겠죠. 왜냐구요? 그전에는 관찰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관찰하면(보면, 의식하면) 그때 파동수축이 일어나서 입자화된 구체적인 것이 현상으로 실재한다는 것이다.

관찰(그냥 바라 봄: 엉덩이를 의식함) 확률해석(입자화 될 장소: 엉덩이에)
 파동수축(입자화: 압력으로 느끼는 촉감)

의식의 선택에 관해서 또 다른 실험을 해 볼까요? 아래의 그림을 다음의 요령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 그림의 중간에 있는 점 4개를 30초 정도 쳐다본 후 잠시 눈을 감고,
- 그 다음 벽이나 천정을 향해 눈을 깜빡거리 봅니다
- 동그란 빛 가운데 무언가가 보일 것입니다

그림3. 지금까지 보았던 세상과 새롭게 보는 세상

위의 방식으로 관찰하지 않았을 때는 즉, 그냥 보았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영상이 위의 방식으로 관찰한 결과 영상이 나타났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파동(波動, wave motion)과 생체정보(Bio-Information)
그리고 생명장(生命場, Life-Field)

“연못 한가운데 돌을 던졌다. 그러자 연못에는 동그란 파문이 일었다” 이것이 파동이다. 이 파동을 물결파라고 한다. 파동이란 어느 한 지점의 진동이 옆으로 퍼지는 현상을 말하며, 진동이란 한 점을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어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의미한다. 물결파의 경우 한 지점에서 수면이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것이 수면파의 진동이며, 이 진동은 동심원을 그리면서 주변으로 퍼지게 된다. 이것이 수면파(물결파)이다. 이러한 파동은 전자의 운동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전자기파라고 하며 양자물리학에서 말하는 파동은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 전자기파란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돌면서 발생하는 회전자찰력에 의한 전자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이 주변으로 퍼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자기파는 전자의 구조와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이러한 전자기파가 형성된 공간을 전자기장 또는 파동장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파동이란 전자의 구조와 위치에 관한 정보와 관련이 있는 확률함수(막스 보른)이며, 따라서 파동 보다는 파동정보가 더 적합한 표현이다. 파동장이라 함은 이러한 파동정보에 의해 발생하는 전자기파가 미치는(영향력을 행사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물리학에서 장(場, Field)이라 함은 힘이 미치는 공간- 즉,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힘은 물리계의 변화를 가져온다. 즉, 정보는 장으로 전환되어야만 물리공간의 변화나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역동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파동현상을 생명체에 적용한 이론이 생체정보(Bio-information)와 생명장(Life-Field)이론이며 이 이론은 기본적으로 모든 생명체는 자기만의 고유

한 생리적 진동(정보)과 병리적 진동(정보)을 함께 지니고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생리적 진동을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생명체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활성화 할 수 있다. 생체정보이론은 포프(F.A. Popp)가 주창한 이론으로서, 세포에서 발생한 극 미세한 생체광자(Bio-Photon)를 통해서 세포들 간의 정보교환이 이루어져 생명현상을 유지한다는 이론이다. 생체정보는 생명현상의 근원이지만 그 자체로는 물리적인 실체를 규명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존재이다. 그러나 생체정보는 생명활동의 근원으로서 작용하면서 생명현상을 유도하는 끌개이며, 그 특성은 생명활동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생체정보는 그 실체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생명현상의 이면에 숨어서 생명현상을 주관한다. 또한 생체정보는 생명현상을 주관하기 위해서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서로 다른 생체정보(생명작용, 의식작용) 등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을 발휘한다. 이런 의미에서 생체정보는 간섭, 중첩과 같은 파동적 성질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서, 물리학적 파동(정보)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생체정보가 실제로 생명체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을 설명한 것이 생명장이론이다. 생명장이론은 생명체의 전기적 현상을 바탕으로, 생명체에는 각자가 고유한 생체전자기장을 갖고 있다는 관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즉, 생명체는 생체정보라고 하는 파동정보가 생명장이라고 하는 파동장(생체전자기장)을 통해서 생명현상을 주관하고 생명활동을 유지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양자물리학에서 살펴본 미시세계의 물리현상이 그대로 생명체에도 적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사람의 경우, 오라장(Aura), 위기층(衛氣, 몸을 호위하는 기운)의 형태로 생명장(Life Field)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은 파동현상 속에서 사람이 외부와 교류하는 통로가 된다.

표1. 몸과 마음과 파동의 법칙

	입자의 세계	파동의 세계	입자의 세계
몸	원자이상의 분자, 세포, 기관, 장부, 인체전체	원자내부의 구성요소들이 만들어내는 생체전자기파 현상(양성자와 전자의 회전마찰에너지, 생체전자기장, 생체에 지장, 생명장)	파동의 공명현상으로 몸의 파동과 마음의 파동은 하나로 통합되고, 통합된 파동은 몸과 마음의 입자와 공명함으로 인해 몸과 마음은 하나로 통합된다.
마음	방향성을 가진 고착된 생각(입자화/의식화)된 생각=신념/믿음)	입자화된 생각이 만들어내는 사고장(신념에 지장) 및 이에 대한 집착과 저항의 감정장(감정에 지장)	
물리학의 관점	고전물리학 원자와 그 이상의 입자세계에 관련된 거시물리학	양자물리학 전자와 그 이하의 소립자세계에 관련된 미시물리학	
운동법칙	뉴턴의 운동법칙: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의 법칙(계으름의 법칙)과 그것을 변화시키는 힘의 법칙(사건과 자극의 법칙), 그리고 주어진 힘에 대한 반응의 과정인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자극과 반응의 법칙)이 만유인력의 중력장 속에서 존재	드브로이 물질파의 운동성을 나타낸 슈뢰딩거의 파동함수와 이에 대한 확률해석(불확정성) 및 파동수축 현상(의식의 선택)이 전자기장속에서 존재	
적용범위	드러난 거시세계	드러나지 않은 미시세계	
변화에 적응	둔감	매우 민감	
	입자와 파동의 상보성에 의하여 입자와 파동은 한 몸이다		몸과 마음은 하나인 실체의 두 가지 측면이다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파동

이러한 파동현상은 사람의 몸과 마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람은 몸과 마음의 이중구조로 되어있는데, 몸은 “장기와 기관 → 세포 → 분자 → 원자”로 표현되는 입자적 구조와 몸을 구성하는 원자내의 전자로 대표되는 소립자의 위치와 구조에 관련한 정보인 생체정보인 파동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생체전자기파 현상인 생체전자기장(생체에너지장, 생명장)이 하나의 쌍으로 존재한다. 또한 마음은 방향성을 가진 고착된 생각(신념/믿음)과 이것이 만들어 내는 사고장 및 이에 대한 집착과 저항의 감정에너지장(감정장)이 하나의 쌍으로 존재한다.

여기서 방향성을 가진 생각은 물질화의 정도가 높아 잘 움직이지 않으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입자화가 되어 현실공간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 방향성은 의식의 선택에 의해서 시작되며 반복에 의한 의식화가 심화될수록 입자화가 되어 고착된다. 입자화된 몸과 마음은 그만큼 진동수가 떨어져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게 되며, 뉴턴의 운동법칙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된다. 또한 파동의 공명현상을 통하여 몸의 파동장인 생체에너지장과 마음의 파동장인 사고장과 감정장은 파동의 공명현상에 의하여 서로 공명하게 되고 이것을 연결고리로 몸과 마음은 한 몸으로 공명한다. 따라서 몸이 불편하거나 생활이 어려우면 마음도 따라서 불편하거나 두려움을 느끼게 되며, 몸이 건강하거나 삶이 개선되면 그만큼 마음도 편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다.

입자화는 의도화된 의식의 선택의 결과이며 따라서 현재 드러난 삶의 모습은 아무리 원하지 않았다고 해도 오랜 기간 혹은 강한 충격으로 체화(당연한 습관화)되어 의식의 밑바닥에 깔려 그것이 의식인지도 모르는 무의식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빠져 나오는 길은 무의식의 상태에서 벗어나 의식했음을 알아차리고 나서 또 다시 의식하지 않는 것이다. 또는 그 의식-즉, 무의식이 될 정도로 강하게 체화된 의식과 한 몸으로 존재하는 파동장의 에너지를 변화시켜 거

꾸로 의식의 정보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파동장의 세계는 전자 이하의 소립자로 구성되는 미시세계의 운동법칙을 표현하며 고착되지 않아 진동수가 높고 정보교류가 입자보다 매우 수월하다. 따라서 뉴턴의 운동법칙에 지배 받는 원자와 그 이상의 분자 및 개체로 구성되는 거시세계인 입자의 세계에 비해서 변용과 변화가 훨씬 수월하다.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파동장의 세계는 의식(입자화된 생각, 믿음, 신념)의 세계를 다룰 때, 특히 보이지도 느낄 수도 없는 무의식의 입자를 다룰 때는 매우 강력한 도구를 제시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사람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는 양자론의 파동현상을 통해서 하나로 연결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결국 사람의 본체는 파동(정보)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파동장이라고 하는 에너지현상을 고려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파동현상을 적용해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도 치료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잘못 적용할 경우 반대의 역작용도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파동의 존재방식- 색과 빛, 소리, 촉감과 질감, 냄새, 맛

일상 속에서 이러한 파동현상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방식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가능하다. 눈으로 보는 시각(색과 빛), 귀로 듣는 청각(소리), 몸으로 느끼는 촉각(질감과 통증), 코로 냄새 맡는 후각, 입으로 맛을 보는 미각 등이 그것이며 이러한 다섯 가지의 방식으로 사람은 파동을 전달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즉, 사람은 파동 속에서 이미 살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도 그러한 대목이 나온다. “태초에 말씀(소리)이 있었고 빛(색)이 있으라 하매...”이 말은 모든 것이 파동 속에서 생겨나고 그 속에서 움직거리는 모든 생명현상을 한마디로 함축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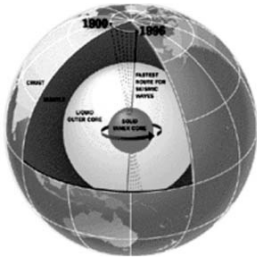
파동이 현상계에 드러나는 방식에 대해서 장미십자회원(1484년 로젠크루즈가 창설한 유럽에서 활동을 벌인 연금술 비밀 결사회)들은 몇 세기 동안 옥타브의 관계와 옥타브를 주파수, 혹은 모든 진동의 수준에 적용하는 것을 연구했다. 우주 진동에 대한 장미십자회의 차트는 옥타브와 주파수의 관계, 그리고 물질세계에서

그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옥타브 1-4는 촉감을 나타내며 주파수는 2-10헤르츠(Hz)이다. 옥타브 5-14는 소리를 나타내며 10-16,884 헤르츠이다. 전자기주파수는 옥타브 15-36으로 범위는 16,888-68,719,906,944 헤르츠이다. 옥타브 36-40은 감마선, 옥타브 41-48은 적외선, 옥타브 48-50은 가시광선과 섀펙트럼, 옥타브 51-55는 자외선, 옥타브 60-75는 감마선과 우주진동을 나타낸다. 옥타브64-68에서 정신능력이 일어나며 물리적인 것이 아닌, 영혼의 본질이 발현되는 것은 옥타브 70이상이라고 한다.

절국 파동현상은 진동수의 차이에 따라 현실세계에서 각기 다른 현상으로 존재하며, 사람은 다섯 가지 감각을 통해서 각각의 물리적인 현상과 교류를 하고 있으며 이를 초월한 제6감으로는 정신적인 부분과 영혼의 본질과 교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양자물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파동은 전자기파의 형식으로 존재하면서 전자기장이라고 하는 에너지공간 속에서 주위로 전파해 간다.

어머니 지구와의 공명-전자기장(電磁氣場)

장(場)이란 물체 간에 작용하는 힘을 전달하는 매질(媒質) 공간을 의미하며, 끈이론이나 통일장 이론에 의하면 자연상태에서 우주에 존재하는 근원적인 4가지 힘이 있다고 한다. 이 4가지 힘은 강력, 약력, 전자기력, 중력이고 이 중에서 가장 강한 힘은 강력 그 다음은 약력, 전자기력, 중력의 순이다. 그 중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중력과 전자기력밖에 없다. 원자와 전자 사이에 존재하는 힘들이 전기력이고 전자와 양성자 사이에 존재하는데 전자는 아주 작기 때문에 혼자서는 힘이 매우 미약하다. 하지만 이 전자를 많이 모아 놓았을 경우 그 힘은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자석이나 코일, 콘덴서 등은 전자를 응축하여 증폭하는 시스템 중의 하나이며 이렇게 응축된 전자기력이 역동성을 가지고 움직일 때 전자기장이라고 하는 물리적 힘의 공간이 형성된다. 지구는 가장 강력한 전자기력 응축시스템이며 이러한 지구가 만들어내는 힘의 공간이 바로 지구전자기장(지구자기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방향을 알아보려고 할 때 나침반을 사용한다. 나침반 바늘의 N극은 항상 북을 가리키고, S극은 남을 가리킨다. 이는 지구가 북극은 S극, 남극은 N극으로 돼 있는 커다란 자석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지구와 지구 주위에 나타나는 자석으로서의 성질을 지구자기(자기)의 세기는 지역과 고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약 0.5가우스(G)라 하고, 지구자기가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지구자기장(geomagnetic field)이라고 한다. 이러한 지구자기장의 원인에 대해서 카를 프리드리히 가우스는 지구의 자기장에 대한 연구를 하여 주요 쌍극자(남극과 북극의 2개의 극을 가짐) 성분의 근원이 지구 외부가 아닌 지구 내부에 기인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쌍극자 성분이 지구 반지름의 제곱에 반비하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지구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지구 내부에 있음을 입증하였다. 지구자기장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지구발전기(Geo-dynamo, 다이모)이론에 따르면 지구의 내부에는 외핵으로 불리는 유체 상태의 광물질들이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철이나 니켈처럼 전도성이 높은 성분들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들이 지구 자전에 따라 서서히 회전하면서 원래 있던 자기장에 의해 유도 전류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다시 새로운 자기장을 형성하는 순환 과정이 되풀이된다. 다이모이론에 따르면 지구내부에는 영구자석이 아니라 거대한 발전기가 들어있고 이를 통해서 지구는 거대한 전자기장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구자기장은 도넛형태의 지구보호막인 ‘밴앨런(Van Allen) 복사대’를 형성하여 생명체에 해를 주는 우주방사능 물질이 태양풍에 실려올 때, 이것이 지구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하는 원초적 생존 시스템의 역할을 한다. 또한 생명체의 생체전자기장인 생명장과 공명함으로써 생명체에 생존에너지를 직접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필자는 이것을 어머니 지구가 생명체에 주는 선물인 기(地氣)라 추론해 본다. 이러한 지구의 생명에너지는 생명체의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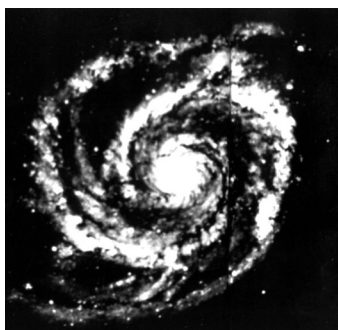
명장의 밀도와 오락도에 의해 그 공명정도가 틀리게 되며 이것을 필자는 공명회로의 뒤틀림으로 표현하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버지 별과의 공명-중력장(重力場)

칼 세이건의 부인이었던 린 마굴리스여사는 그의 아들인 도리언 세이건과 공저한 “생명이란 무엇인가?(What is Life?)”에서 별과 사람의 연관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독일의 화학자 프리드리히 뵐러(Friedrich Woehler 1800-1882)가 우연히 시안산 암모늄 수용액을 가열하여 요소 결정을 최초로 얻어냈을 때, 그는 자신이 생물과 그토록 명백하게 연관된 화합물을 무(無)로부터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중략> 그때 이후로 포름산, 에틸렌, 시안화수소와 같은 여러 탄소 화합물들이 생물체가 아닌, 성간(星間) 공간에서 발견되었다. 오리온자리의 한 성간 구름에서만 해도, 9개 원자로 된 분자인 에틸알콜($\text{CH}_3\text{CH}_2\text{OH}$)이 0.8리터들이 위스키병으로 10의 19승개에 해당하는 양만큼 존재한다. 다른 화합물이 섞이긴 했지만 어느 생물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은 대부분이 물(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졌다. 수소는 질량 기준으로 우주에 있는 원자들의 75퍼센트를 차지한다. <중략> 생명은 그러한 별의 원료로 만들어져 있다. 우주에서 생명은 아주 드물거나 아니면 유일무이한 존재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을 구성하는 재료는 언제라도 쉽사리 이용할 수 있다.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필요한 에너지원이 되는 주 영양소는 탄수화물(CHO), 지방(CHO), 단백질(CHON)로 구성되며, 특히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생물체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에 필요한 복합분자이며, DNA와 RNA, 효소나 항체, 호르몬의 주성분이 된다. 인체의 구성성분을 살펴보면 물 66%, 단백질 16%, 지질 13%, 탄수화물 0.6%, 무기염류 4%, 기타 0.4%로 물을



제외하고 단백질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일반 구조식은 $RCH(NH_2)COOH$ 이다(여기서 C는 탄소, H는 수소, N은 질소, O는 산소, R은 아미노산마다 구조가 다른 곁사슬). 아미노산은 서로 연결되어 긴 사슬을 형성하며 대부분의 단백질은 100개 이상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백질을 구성하

는 원소인 수소, 산소, 탄소, 질소는 각각 4 : 2 : 2 : 1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몸 전체로 보면 수소와 산소가 2 : 1의 비율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구의 대기권은 질소와 산소가 99%를 차지하며 이중 질소는 78.8%, 산소는 20.95%로 사람의 구성성분과는 판이하게 차이가 난다. 사람의 구성원소는 지구 보다는 위에서 언급된 별의 원료인 성간의 우주물질의 구성과 유사하며 이를 근거로 사람은 최 에 다른 우주공간에서 태어나 지구로 이주해왔다고 하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별의 구성물질이 지구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앞서 우리는 우주에는 근원적인 4가지 힘이 있으며 그 중에서 중력이 가장 약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약한 중력은 극성이 전혀 없기에 물질이 질량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거대 질량의 경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고 우주 전체의 질량을 놓고 본다면 가장 강력하고 가장 멀리 힘이 전달이 된다. 따라서 현대 우주는 중력에 의한 물리 법칙이 전반적으로 지배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우주물질 또는 그 파동정보를 끌고 올 수 있으며, 우주물질과 유사한 구성원소를 가진 사람의 몸과 공명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람은 별과 지구의 중력장에너지를 이용하여 사람의 몸을 기본적으로 구성하면서 유전정보를 보전하는 DNA의 구성원소인 CHON과 우주 또는 별과 끊임없이 교감을 하고 있으며 그 영향을 항상 받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즉, 사람은 아버지별에 의해서 생겨났고 중력장의 파동공명현상을 통해서 태의 유전정보를 끊임없이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하늘이 사람에게 주는 근원의 에너지인 천기(天氣)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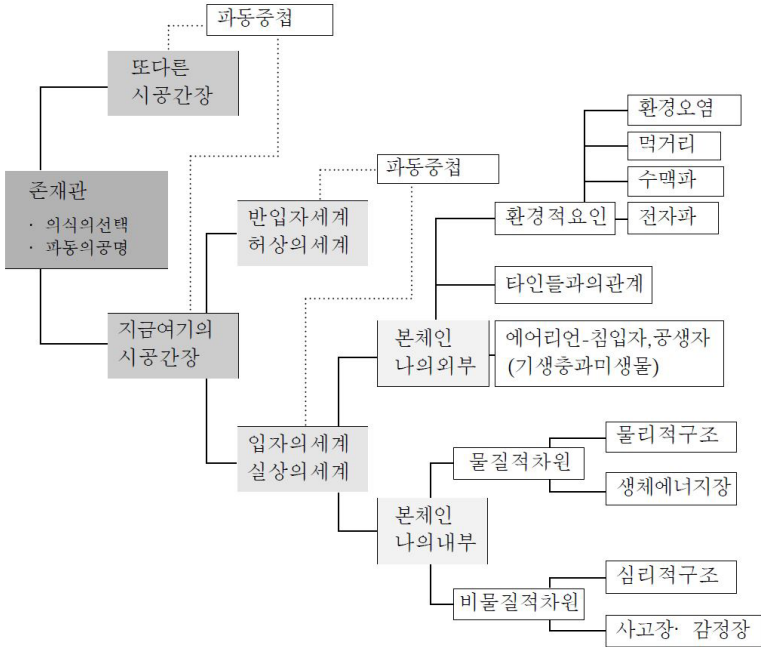
존재성의 뒤틀림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있고 그것을 유지하고 운용하는 방법은 파동현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파동현상은 다섯 가지 감각과 제 6감을 통해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그것은 물리공간을 구성하는 기본힘의 장인 전자기장과 중력장을 통해서 공명이 일어날 수 있었다. 또한 전자기장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생체전자기장인 생명장과 지구의 생명에너지를 공명시키고, 중력장은 사람의 근본원소이면서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CHON과 별의 생명(유전)정보를 공명시키는 중요한 매체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람은 본래의 생체전자기장과 CHON의 파동정보를 제대로 갖고 있기만 한다면 저절로 생명에너지는 공명하게 되고, 따라서 생명현상을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최초로 설계된 것이다. 그러나 물리적 심리적인 기타의 이유로 그 공명회로에 문제가 생기면서 자연스러운 생명활동이 부자연스럽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억지로 기를 모으고 억지로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스러운 것인가를 알 수 있다. TV안테나가 고장 났는데 수만 번 스위치를 켜다 고 제대로 나오겠는가? 안테나를 고치면 간단한테 그 안테나를 고치는 것이 왜곡된 파동정보를 개선하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더욱 높은 차원의 파동대역으로 존재성을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이다. 서울지역에서 SBS를 보려면 6번 채널을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안테나만 고치고(존재성의 왜곡을 개선) 주파수만 맞추면(의식의 선택) 저절로 모든 생명정보는 들어오게 되어있는 것이다. 이것이 온 우주에 넘치는 프리에너지를 받아들이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연스런 지향점이 아니겠는가? 프리에너지를 수신하는 안테나의 일그러짐은 “존재성의 왜곡”이라고 필자가 명명한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이는 아래의 도표로 요약 정리된다.

표2. 존재관-의식의 선택과 파동의 공명



존재성의 왜곡은 자기의 내부와 자기의 외부로 나누어 볼수 있다. 내부의 문제로는 물리적인 구조와 심리적인 구조로 나누어지며 물리적인 구조의 문제는 체내의 중금속, 화학/환경독소 그리고 활성산소 등으로 대표되는 물질적인 독소의 해독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 심리적인 부분은 억울함의 코드에서 기인한 심리적인 독소의 해독이 중요한데, 과거의 억울함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하고 이


로 인해 현재에서는 집착과 저항이라는 심리적 독소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독소는 먼저 생체전류의 흐름을 방해하여 생체전자기장의 밀도를 낮추고 오락도를 높여 몸을 탁하게 만든다. 특히 심리적인 독소는 감정장과 결합하여 6장6부의 운기를 저해하여 몸의 기본적인 에너지흐름을 막아 생체전자기장을 더욱 왜곡시킨다. 또한 외부의 문제로는 환경적인 문제를 들 수 있는데, 그 첫째로 먹거리의 오염이다. 식물은 앞으로는 우주의 에너지를 공명하고 뿌리로는 지구의 에너지와 공명하는데 농약은 식물의 공명회로를 망가뜨리고 더불어 이를 먹는 사람의 공명회로도 망가뜨리게 된다. 또한 전자파와 수맥파는 치명적으로 생체전자기장과 CHON의 공명회로를 파괴한다. 에어리언으로 표현한 미세기생충은 물리적으로 신진대사를 막고 독소를 뿜어내고, 심리적으로는 사람의 의식상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기생충 제국”, “생명이란 무엇인가?” 참조). 또한 주변인들의 부정적인 사고장 및 감정장에 의해서 생체정보가 왜곡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사람의 장 중첩 현상이다.

한편, 차원을 달리해서 보면 존재계는 입자의 세계이고 비 존재계는 반입자의 세계로 볼 수 있는데, 반입자세계란 영적인 세계로 소위 육체가 없는 존재들의 장 중첩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심하게 되면 빙의현상으로 나타나며 경락이나 차크라 또는 오라장 속에 중첩되어 원활한 에너지의 흐름이나 유입을 막아 생체정보장을 심하게 교란하고 의식의 중첩현상까지 야기하여 다중인격의 자아분열 증상까지 일으킨다. 마지막으로 시공간장의 중첩현상을 살펴 볼 수 있다. 시공간장의 중첩은 기억하는 과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지금 여기라는 시공간 속에 있지 못하고 다중적인 시공간이 중첩되어 시대착오적인 관점 또는 비현실적인 공상(이상심리, Trance Psychology)에 빠지는 경우이다.

이러한 모든 현상은 사람의 생체전자기장을 교란하거나 파괴하고 CHON의 고유 파동을 왜곡시킴으로 인해서 지구의 전자기장에 의한 생명에너지와의 공명과 중력장에 의한 별의 CHON 스펙트럼과의 공명을 왜곡 또는 차단시켜 프리에너지의 자연스러운 유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입자적인 차

원의 약물요법과 심리/의식개발 요법 그리고 파동적인 차원의 전기/자기치료 및 자연스러운 유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입자적인 차원의 약물요법과 심리/의식개발 요법 그리고 파동적인 차원의 전기/자기치료 및 중력장 회복 요법 등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파동차원의 접근은 여섯 가지 감각정보를 이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즉, 청각의 소리공명요법, 시각의 색채공명요법, 후각의 냄새공명요법(아로마요법), 미각의 맛 공명요법(한약재의 맛) 등의 입자를 이용한 파동전달 방식과 촉각의 전자기치료요법(Rife Machine, Japper), 제육감의 파동정보전사 요법(라디오닉스계열, 염파전사) 등의 파동 자체를 직접 이용한 방식으로 구분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필자는 파동정보전사요법과 전기치료법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다른 방법에 비해 보다 정밀하고 섬세하며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파동정보를 직접 주사하는 방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식(입자화된 생각, 믿음, 신념)의 세계를 다룰 때, 특히 보이지도 느낄 수도 없는 무의식의 입자를 다룰 때는 매우 강력한 도구를 제시할 수 있다.

이상의 접근을 총체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이 필자가 탐구하고자하는 의기학(意氣學)이며 구체적인 접근에 대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하겠다.

이미 다 있다. 우리 안에... 단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다. 우주는 준비된 만큼 우리에게 다가온다. 우주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만큼만 우리에게 준다. 우주는 주고 싶어 한다. 그러나 주지 못한다. 아니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이다. 모든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정덕영 | 성균관대 통계학과 졸업. 고려대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유니시스 코리아 근무. 아바타 마스터이며 성분분석가, 파동음악 '살맛터의 파동음악', '위싱볼텍스' 등을 제작. 현재 살맛터 건강 미인 대표.